

모심으로 하나되는

제125주년 인일기념

포덕 163년 12월 24일



제125주년

人 日 기 념



포덕 163년 12월 24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제13장 기념송	12
천덕송_제30장 인일기념가	14
人與物開闢說(인여물개벽설)	16
의암 손병희 성사 약전(略傳)	18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인어물개벽설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천덕송 합창_ 제30장 인일기념가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 주문 21회 합송

[인일기념 식후 행사]

사인여천국민화합문화제 어울림 한마당(전국교인 장기자랑)

기 념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천도교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어느 새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만물이 싹트는 새 기운과 함께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동덕
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오늘을 어제에 비추며, 어제로 내
일을 설계하면서 오늘 이 순간 지혜에 이르기를 염원하며 마음을 다
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해넘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 동덕님 가정 생활은 어떠하셨는지요?

천도교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떤 이해와 만남이 있으셨는지요?

오늘은 의암성사께서 해월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으신 지 1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학농민혁명 후 성사께서 도통을 물려받으신 무렵, 동학 교단은 물론이고, 한민족 전체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이리떼와 같았고, 조정은 무능하였으며, 백성들의 삶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세기말적 혼란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도통을 받으신 의암성사께서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포덕 2년 청주군 대주리 손씨 집안에서 재가녀의 후생으로 탄생하신 의암성사는, 신분 차별에 분노하며 젊은 시절 한때를 울분으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앞장섰던 의암성사께서는, 보국안민과 함께 지상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무극대도’가 바로 동학임을 확인하자마자, 입도를 결행하셨습니다. 그리

고 해월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하루에 주문 3만 독 송주로 끊임없는 독공 수련 끝에 대도를 체득하시고 위대한 성인(聖人)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통령(統領)으로서 혁명군을 지휘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헌신하셨습니다. 비록 일본의 군사적 개입으로 좌절했습니다만, 개혁 세상을 향한 마음만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한때 천하대세를 살피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 머물며 서양의 앞선 물질문명을 탐색하기도 하셨지만, 새로운 세상은 물질문명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며,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大告天下) 하시는 문명사적 결단을 하셨습니다.

자주독립을 향한 성사의 강인한 의지는 드디어 3·1 대혁명으로 세계에 커다란 충격과 영감을 주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이 거사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당시 고통 속에 시달리던 약소국 민중들에게도 큰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거대한 제국의 폭력에 당당히 맞서는 풀뿌리 민중의 위대함을 확

인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곧 한울님이다’로 풀이되는 스승님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은, 인간이 본래부터 품고 있는 ‘한울님 성품’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인류사적인 선언입니다. 이 가르침은 인류를 우주적인 정신으로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암성사의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독공수련, 그리고 동학 농민혁명 당시 통령(統領)으로, 3·1 대혁명에서는 민족대표로서 발휘하신 탁월한 영도력과 불굴의 정신은, 시대의 사표이자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는, 의암성사께서 “육신은 한때의 객체이며, 성령이야말로 영원한 주체이므로, 성령이 주체가 된 삶을 살아라”고 하신 이 신환성(以身換性)의 소중한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적인 결기로 작용한 이 가르침이, 우리 천도교인에게는 강인하고도 거룩한 생명력을 주는 한편, 신앙과 수도(修道)에 큰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신환성의 가르침은 전염병과 전쟁, 기

후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 종교와 이념의 갈등 등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정신적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령으로서 우리 자랑스러운 천도교단을 이 시대의 정신적 중심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현기사와 연원회의 역할 강화, 수도원의 활성화, 교구 간 협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성, 그리고 재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지만, 동덕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성사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아니 이 세상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실까요! 그 형형하셨던 눈빛이 참으로 그리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생태적·정신적인 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대신사께서는 ‘다시개벽’을 부르짖으시며 ‘문명적 대전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 모든 존재들이 차별받지 않고, 거룩한 한울님으로 모시고 공경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하겠

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기된 3·1 대혁명 정신을 금강석처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인류와 지구를 살리는 ‘위대한 과업’은 물론, 도의적이고 생태적인 문명 전환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을,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도록 교단적 지혜를 총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쇠하신 해월신사를 등에 업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신 성사, 일제의 모진 고문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 의암성사의 용맹정진(勇猛精進)을, 그 불굴의 정신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천지와 해와 달이 가슴 속에 들어오니, 천지가 큰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이 큰 것이라, 군자의 말과 행동은 천지를 움직이나니, 천지조화는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니라’고 일깨워주셨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천도교인부터 천심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목적인 지상천국이 펼쳐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125주년이 되는 인일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여러 동덕님과 함께 선언합니다.

성사님의 성령을 가슴에 품고

이신환성의 삶을 살아갑시다.

끝으로 의암성사께서 모질기만 한 옥중 생활 도중 쓰신 ‘옥중몽시(獄中夢詩)’를 상기하며, 성사님의 굳세고 드높으신 뜻을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봄바람 삼월에 좋은 집에 오르니, 春風三月登好館

일월이 빛나고 밝아 만백성이 즐기더라. 日月光明萬姓歡

겨울바람이 몹시 차갑습니다. 그러나 겨울 얼음 밑에 봄 시냇물 소식이 흐르고 있듯이, 동덕님들 마음에는 이미 한울님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한 해를 마감하고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는 모두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이룰 수 있는 멋진 해가 되기 바라며,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심고 드리며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3(2022)년 12월 24일

천도교 교령 박 상 중 심고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올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제30장 인일기념가

오 늘 인 일 기 념 의 날 인 일 - 기 념 의 날

천 도 승 통 의 사 - 영 성 사 에 게 내 리 시 니

아 동 방 하 늘 영 롱 히 개 이 어 후 - 천 - 개 벽 에

현 - 도 의 이 아 침 이 르 도 다

창생들아 다같이 이 - 날 울즐기세 성 사 의

높 으 신 덕 길 이 빛 날 이 아 침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hymn.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Each system has a vocal line (treble clef) and a piano accompaniment line (bass cle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The first system's lyrics are '창생들아 다같이 이 - 날 울즐기세 성 사 의' and the second system's lyrics are '높 으 신 덕 길 이 빛 날 이 아 침'.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bass line with chords and some melodic movement in the right hand.

人與物開闢說(인여물개벽설)

개벽이란 한울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서 혼돈한 한 덩어리로 모였다가 자·축 두 조각으로 나뉘임을 의미함인가. 아니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함이니, 천지 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써 하고 인생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써 하나니,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이니라. 지금에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일을 생각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그 다음 차례의 일이니라.

그러나 정신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모실 시자로 개벽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 정자로 개벽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아득하고 망녕된 생각을 알 지 자로 개벽하고, 아득하고 망녕된 생각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

「천하 일만 생각이 전혀 한 몸에 있으니, 앞의 물결이 겨우 쉬면 뒤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이 생각이 어느 때에 없어질 것이냐. 이것을 끊으려고 불가능의 심력을 공연히 허비치 말고, 다만 「내 속에 어떤 내가 있어 굴신동정하는 것을 가르치고 시키는가」하는 생각을 일마다 생각하여 오래도록 습

성을 지니면, 성품과 몸 두 가지에 어느 것이 주체요 어느 것이 객체인 것과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니, 이 깨달음이 곧 육신을 개혁하는 것이니라.

이 생각을 한번 개혁하면, 이에 희고 흰 얼음과 눈의 깨끗함과 한울이 개이고 날이 밝은 광명과 산이 높고 물의 흐름이 방정함과 뜻이 크고 뛰어난 운학의 고상한 그것이 곧 참된 정신의 나이니, 이 나는 한울이 기울어지고 땅이 터지더라도 길이 이와 같을 것이요, 바다가 마르고 돌이 녹아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라. 이 미웁하고 미웁한 세계를 돌아보고 개혁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오. 우리 대신사를 보라. 이러한 사람이 아니신가.

천지의 기수로 보면 지금은 일년의 가을이요, 하루의 저녁때와 같은 세계라. 물질의 복잡한 것과 공기의 부패한 것이 그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인들 어찌 홀로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큰 시기가 한번 바뀔 때가 눈 앞에 닥쳤도다.

무섭게 죽이는 가을 바람이 쌀쌀하고 쓸쓸하게 서쪽으로부터 동쪽에 불어오니, 우거졌던 푸른 초목이 아무리 현재의 모양을 아직 보존하고 있지만 하루밤 지나면 산에 가득차 누렇게 떨어지는 가련한 서리맞은 잎 뿐이리니, 이제 이 유형의 개혁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발을 가는 그 사람이라도 「한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적막한 서리맞은 잎」과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건이 개혁하는 때이니라.

의암 손병희(義菴 孫秉熙) 성사 약전(略傳)

의암성사(義菴聖師)의 이름은 손병희(孫秉熙)이다. 의암성사는 포덕 2(1861)년 충청북도 청원에서 태어나시어 동학이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새로운 세상인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지닌 도라는 말을 듣고는 포덕 23(1882)년에 입도하셨다. 입도 이후 의암성사는 호방했던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주문 21자를 매일 3만 독(讀)씩 읽고 외우며 지극한 수련에 임하셨다. 또 주문을 읽는 틈틈이 매일 짚신을 두 켤레씩을 삼아 5일마다 열리는 청주장에 나가 팔아 호구지책을 삼았다. 이와 같은 생활을 3년간이나 계속하며 도의 기본을 이룬 이후에는 해월신사를 모시고 공주 가섭사(伽葉寺), 익산 사자암(獅子庵), 풍천 용문사 등에서 독공(篤工) 수련을 계속하시었다. 이러한 지극한 종교적인 수행은 평생에 걸친 의암성사의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동학혁명 당시 의암성사는 동학군의 통령(統領)으로 진두지휘를 하며 전봉준과 함께 공주 우금치전투 등에서 큰 활약하시었다. 이후 해월신사를 모시고 관의 추적을 피해 원주, 여주 등지를 전전하시던 중 37세가 되던 포덕 38(1897)년 12월 24일 해월신사로부터 도통(道統)을 전수받고 천도교의 3세 교조가 되시었다.

종통을 이어받은 의암성사는 교단을 재수습하는 한편 세계정세를 살피기 위하여 일본에 머물면서 여러 지사(志士)들과 국사를 의논하고 또 교인

수습책을 강구하셨다. 이때에 의암성사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절감하고 교인 청년 중 우수한 인재를 뽑아 일본에 유학을 시키는 등 꾸준하게 재기를 위한 준비를 하셨다. 포덕 45(1904)년에 러일전쟁이 발발할 기미가 보이자 진보회(進步會)를 조직, 교인들을 규합하는 한편, 이해 8월에 전국의 동학 도인으로 하여금 일제히 머리를 깎고 옷을 간편하게 하는(斷髮黑衣) 등 신문화 운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기우는 국운(國運)을 혁신하고자 갑진 개혁과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셨다.

마침내 포덕 46(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온 천하에 선포하셨다. 이로써 동학은 은도(隱道) 시대를 벗어나 현도(顯道) 시대를 맞이하였다. 의암성사는 포덕 47(1906)년 1월 귀국하여 천도교 중앙총부를 서울에 설치하고, 또 각 군에 교구를 설치하여 근대적 종교 체계를 갖추어 새로운 출발을 전개하셨다.

포덕 51(1910)년 일제의 강점으로 우리나라는 식민지시기에 들어선다. 의암성사는 우이동에 봉황각(鳳凰閣)을 짓고 전국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일곱 번에 걸쳐 이신환성(以身換性)의 법설과 함께 49일 수련을 실시하여 신앙통일, 규모일치를 강조하셨다. 이러한 수련은 곧 정신력의 단결과 조직의 강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뒷날 일어나게 되는 3·1 독립운동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의암성사는 이미 10년 가까운 기간을 3·1 독립운동을 위하여 그 준비를 하셨다. 그리하여 포덕 60(1919)년 1월 5일을 기해 전국 교인들에게 일제히 49일 특별기도를 명하여 3·1 독립

운동을 하기 위한 정신무장을 시킨 후 3월 1일 거족적인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셨다.

3·1 독립운동 이후 일제에 의하여 구금된 의암성사는 옥중에서 고문으로 병환을 얻게 되어 이후 병보석으로 출감하였으나 그 병세가 악화되어 포덕 63(1922)년 상춘원(常春園)에서 환원(還元)하셨다. 수운대신사, 해월신사와 마찬가지로 의암성사 역시 억압받는 민중과 민족을 위하여 혼신의 정성과 힘을 다하다가 장엄하게 순도(殉道)하신 것이다. 향년 62세이셨다.

의암성사께서는 「무체법경」, 「후경」(1·2), 「십삼관법」, 「각세진경」, 「명심장」, 「천도태원경」, 「대종정의」, 「수수명실록」, 「명리전」, 「삼전론」, 「이신환성설」(1·2), 「성령출세설」, 「법문」, 「무하설」, 「인여물개벽설」, 「입진경」, 「우후청산」, 「아지정신」, 「삼화일목」, 「권도문」, 「강론경의」, 「위생보호장」, 「천도교와 신종교」, 「신앙통일과 규모일치」, 「원자분자설」, 「몽중문답가」, 「무하사」, 「강서」, 「시문」, 「기타시문」, 「기타」 등의 법설을 남기셨다.

사인여천 국민화합 문화제

주최·주관  천도교중앙총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